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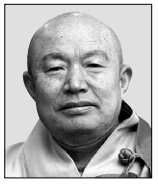
일 주 문



신흥사 관음보살 점안
속초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11월 14일 신흥사 통일대불 내원법당에서 관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성철 스님 선어록 강좌
백련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11월 26일부터 2013년 2월 18일까지 '성철 큰스님 강설 선어록 특별강좌'를 진행한다. (02)735-2428



나눔김장 봉사
순천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은 12월 2일 송광사 일대에서 나눔김장 봉사를 진행한다.



불교인권상 시상식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은 '18회 불교인권상' 시상식을 11월 2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진행한다. 수상자로 일본산 묘법사가 선정됐다.



이웃종교인과 강연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이 11월 21일 동대문구청 초청 이웃종교인들과 함께 강연을 펼친다.



불교의식음악연구 출간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법현 스님은 12월 1일 신촌 봉원사에서 '불교의식음악 연구, 악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만해공원 조성 일일 찾집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장은 11월 22~24일 조계사 나무꾼거리에서 심우장 만해공원 조성위원 일일찾집을 연다. (02)722-1044

“에밀레종 복원도 자신 있습니다”

대만 최대 범종 제작한 원광식 성종사 사장



“어떤 종이라도 소리가 문양 등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어요. 아직 성공하지 못한 에밀레종 복원도 자신 있습니다.”

범종 제작업체인 진천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주조했다. 대만 최대 범종이다. 불광산사는 대만에서 가장 크고 우수한 범종을 제작하기로 하고 대만을 비롯해 한·중·일 등 세계 각국 범종 제작업체의 기술력을 분석해 성종사에 제작을 의뢰했다.

15개월의 작업기간을 거쳐 제작된 이 종은 높이 4.32m, 지름 2.55m, 종량 25t의 초대형 범종으로 성종사 특히 공법인 밀랍주조공법(특허명 범종의 로스트왁스 주조 방법)으로 제작했다.

대만 사찰 범종이지만 한국 범종인 봉선사 범종의 형태를 취했고 표면에는 한·중·일 3국 범종의 양식을 혼합한 독특한 문양과 금강경 5200여 자를 새겼다.

원광식 주철장은 “일본, 대만, 중국 업체와의 경쟁을 제치고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주한 것을 계기로 범종 국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 주철장은 평생을 종만드는데 바쳤다. 1973년 8촌 형이던 창업자 원국진 전 사장이 작고하자 22세 때부터 기술을 전수받던 원 사장이 성종사를 인수했다. 쇠뿔이 튀는 바람에 오른쪽 눈을 실명하는 시련을 겪었지만 종만드는 일을 계속했다. 수석사 범종 등 전국 사찰의 크고 작은 범종 틀이 그의 손을 거쳐 갔다.

“종을 만들면 만들수록 조상들의 지혜에 놀랄 뿐입니다. 종의 문양, 설계, 합금법 등이 잘 어울려야 에밀레종 같은 수작의 범종을 만들 수 있어요. 조상의 지혜에 놀랄 따름이죠.”

원 주철장의 이력 원력은 아들이 이어가고 있다. 14년째 부친을 도우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원천수 이사(43)는 이번 수출에 대해 “전통 범종 제조기술을 잇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종 제작사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창회 24년 세계평화와 나라안정을 위한 승려대회 봉행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총재 의륜, 회장 청운)는 창회 24주년을 맞아 세계평화와 나라안정을 위한 승려대회를 11월 9일 여의도 63빌딩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승려대회에는 종단총연합회 회원종단 150여 대표를 비롯해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는 상임부회장 용주 스님의 개회선언, 삼귀의례와 찬불가로 시작했다. 행사에서는 회장인 대한불교원각조계종 총정 청운 스님의 인사말과 총재 겸 이사장인 의륜 스님 인사말에 이어 국제승가법왕정 보광 스님의 법어가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빼빼로 대신 우리 쌀 가래떡을

조계사, 10일 ‘우리 떡하니 사랑합시다’ 운동



조계사는 11월 10일 지난해에 이어 우리 쌀 소비 촉진운동 '우리 떡하니 사랑합시다'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농촌에는 연세 드신 분들만 계셔서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 조계사가 도시와 농촌이 하나가 되는 축제를 하고 있으니 농촌의 특산물을 많이 소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신종일 기자

봉은사, 동국대에 1억 기부

불자 장학금으로 전달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11월 16일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으로부터 제2건학기금 1억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기금은 불자청년 지도자육성장학기금과 교지매입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을 따름이다”며 “올해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동국대학교가 주요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3년 연속 순위가 상승한 것처럼 앞으로도 동국대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교육, 연구, 시설 인프라 개선 등 학교 발전을 위해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봉은사 보내주시 큰 보시가 학교에 많은 힘이 되었다”며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좋은 대학으로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화답했다.



한편, 봉은사는 2010년과 지난해 불자청년지도자육성장학기금으로 각각 5000만원을 기부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교지매입기금으로 5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현재까지 총 2억 5000만원을 기부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어린이지도자聯, 새 회장에 성행 스님



서울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11월 24~25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열리는 제54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에서 새 회장으로 취임한다.

1994년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를 1기로 졸업한 성행 스님은 1995년 반야사 주지로 성립어린이집과 톨비어린이집 운영을 비롯해,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후원모임 카루나의 모임 조직한 바 있다. 또 독거 어르신을 지원하는 복지단체 나르바나 마을 창립하고 재소자 교정교화에도 나섰다.

2005년부터 동년 상임이사로, 또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하며 전국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연꽃처럼 곱고 향기로운 어린이법회’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교육방법과 예방책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목정배 교수의 병상일기

10월 9일 | 한로가 넘어가는 소리 서늘한 물보라 일구며 아늑 가습기로 빗겨 가고 있는 순간. 깊은 숨 한 모금 가을 하늘 밖으로 내뿜고 살려나!

구름 밖 저 넘어 별천지가 있는지 자하빛 안개가 너울춤을 추고 있고, 나도 덩실덩실 덩두경 어깨춤을 추려네.

삶을 귀히 믿고 하루 하루 사세요

10월 11일 | Believe란 무슨 뜻인가. 삶을 존재케 하는 말이다. 즉 live를 being하는 것이라. 생존과 동의어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랑=믿음이니 모든 사람은 삶을 귀히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리라.

영상실로 내려가 가슴과 배를 사진 찍고, 또 관장하고 피 뺀아 가고, 주사 맞고 많이 지치고 있네. 오후엔 또 MR사진, 한 밤엔 금식 참 지루하게 열흘이 훌쩍 지나가네.

인생이란 생로병사 생로에서 바로 바로 직진하면 종로란만. 어이하여 병에서 그 온갖 괴로움을 감당하게 되었을까. 그 병이 본래 없다면, 열 받지 않고 사는 열반바라밀이다.

10월 13일 | 한동안 글을 쓰지 못했네. 트위터에 사고가 발생하여 딸이 와서, 몇 시간 매만져 고쳤네. 고맙다. 그때 또 시작하려고 한다. 허리 아픔이 말할 수 없다. 끊어질듯 통증이 심하다. 그래도 참아 이겨야 한다.

대한불교원효종 종도님들께 드리는 말씀...

대한불교원효종 비상대책위원회 공고문

존경하는 대한불교원효종 종도여러분!

저희는 종단에서 오랫동안 수행정진을 해왔으며, 지금은 종단의 임원으로서 종단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종단의 책임자인신 총무원장께서 종단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서 위기에 처한 종단을 바로 세우고 다시한번 종풍을 더 날리고자 저희들이 종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히 또 다시 장군죽비를 들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총무원장의 비위사실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것이 종단의 명예에 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인내하며 대화를 모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잘못된 과오를 참회해야 할 총무원장께서 적반하장 의 행태를 지속하고 있어 파사현정의 자세로 다음과 같이 총무원장의 비위 사실을 알리고 종단개혁에 종도 여러분의 참여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작금의 김윤철(향운스님)이 종권을 장악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와 종권을 장악한 후의 비행사실들입니다.

■ 김윤철(향운스님)의 종권을 장악을 위한 일련의 행위...

- 1. 종단의 주요 의결기구의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여 종회를 위곡 하였고,
2. 선거를 하지 않고 선거가 이루어진 것처럼 형식만 갖추어 법원을 속여 각종 인허가를 받았으며
3. 원효종의 종헌·종법(입종 30년 경과되어야 종정추대 가능)을 어기고 종도들을 속여 자격 없는 고·장영국(혜봉, 1994년 수계)을 종정으로 추대하여 종권을 장악한 후 각종 비리행위를 일삼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 또한 김윤철(향운스님)의 종권 장악 후 비행은 현대불교신문 제 886호(2012년 5월 2일 15면)에 밝힌 바와 같이

- 1. 창건주의 뜻과 달리 주지를 임명한 고영사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배임수계혐의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에 재판계류중이며 추진금 1억 2천만 원 6월을 구형을 받았고
2. 원주 소림사가 원효종으로 귀속 되자마자 약 24억원이라는 거액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사건으로 춘천지방법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수사하여 부산고검에 계류 중에 있으며
3. 울산시 소재 남산사의 주지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임명할 자격이 없는 자가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종도들로 부터 고소당하여 현재 울산지검, 울주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고
4. 2009년 총회위원 선출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불법행위로 피고소인 자격으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으며
5. 현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총무원장 직무정지처분재판 계류 중에 있고 대법원에서 총회위원 무효소송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6. 현대불교신문 제914호(2012년 11월 14일, 2면)에 게재된 내용 중에는 식별하지 4년 밖에 되지 않은 모 스님을 원로위원으로 공고하고 현 총회위원도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정족수가 25명인데 본인 인척을 포함하여 6명밖에 되지 않는 인원을 총회위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총회위원은 정족수가 최소한 과반수인 13명이 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본 종단 규정 안에서 전체 총회위원 해임통보 조치하였음)
위 사실 이외에도 종정스님의 감사 지시로 규정원과 감사원

의 조사결과 위 비행이 사실로 드러났고, 아울러 종정스님의 종령으로 총무원장 김윤철(향운스님)의 감사지시를 내린바, 이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 규정원장 직무대리 임우섭(성암스님), 감사원장 김두환(일륜스님)을 직위해임 또는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절차 없이 무단적으로 제탈공고를 자행하는 등 종정스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종헌·종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적으로 종법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독단적인 만행을 두고 볼 수 없어 규정원에서 2009년 불법으로 선출한 총회위원을 해임 통보하고 김윤철(향운스님)에게 총무원장직위와 일체 문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긴급으로 김대관(벽송)종정스님 명령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현재 망월사에서 종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대책위에서는 김윤철(향운스님)을 탄핵하였고 종정스님께서 종령으로 김윤철(향운스님)을 총무원장 직위를 해임하라는 명령을 선포하였고 즉시 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김윤철(향운스님)의 수 많은 비리와 부정이 있지만 지면으로는 다 나열하지 못하고, 우리는 다만 종도들의 마음을 모아 새로운 모습으로 원효종의 종지에 부합하는 수행의 본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향후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종단 재산과 종도의 권리를 위하여 강력히 대처해 갈 것을 종도 여러분들께 천명코자합니다.
우리 원효종 원로대덕스님 및 전 종도 스님을 포함한 종도여러분들은 위기에 처한 우리 종단의 종지 종풍을 바로 세우고 종단 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

시기 바랍니다.

■ 대한불교원효종 비상대책위원회

- 위원장 : 종정 김대관(벽송)
원로위원장 : 허창해
부위원장 : 도천
의장 : 해담
원로 : 창일·원각
임시총무원장 : 김순석(휴원 용일)
부위원장 : 명운
감사위원장 : 일륜 규정원장 대행 : 성암

■ 대한불교원효종 교구

- 강원교구위원장 : 창암 경남교구위원장 : 법승
경북교구위원장 : 성국 경북남교구위원장 : 심상
광주교구위원장 : 원각 전남교구위원장 : 마명
전북교구위원장 : 경오 충북교구위원장 : 석암

■ 대한불교원효종 비상대책위원 (순서 무순)

- 성원, 해공, 대성, 지해, 원오, 정행, 명관, 보각, 우담, 영욱, 무승, 도우, 정천, 고산, 정암, 성원, 삼장, 정광, 하산, 천일, 태성, 해공.

불기 2556년 11월 15일

대한불교원효종 비상대책위원회